새해 악귀 물리치고 온갖 기쁜 소식 전하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④ 양산 통도사 해장보각 · 명부전의 호작도


양산 통도사 명부전 호작도.


양산 통도사 해장보각 호작도.

세화 문배도, 데몬 헌터스의 원형

새해 설날의 세시풍속 중 하나가 그림을 선물하거나 대문에 붙이는 것이다. 정월 초하루에 왕이 신하에게 내린 그림을 '세화(歲畫)'라 불렀다. '새해 그림'의 의미일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5년(1510년) 9월 29일의 기록은 궁중에 세화 풍습을 엿보게 한다. "세시 전에 화사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재상에게 우열을 매기게 하여 좋은 것은 궁궐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상과 가까운 신하들에게 하사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은 그를 증명한다.

특히 정조 대에 이르러 문치와 학문 숭상의 고취를 위해 도화서의 차비대령화원들에게 '책가도(책거리)'를 그리게 명하고, 그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귀양까지 보내는 중징계를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왕이 신하에게 선물한 세화는 도화서 화원들이 그린 작품이었다. 조선 후기 궁중 조례집인 〈육전조례〉의 '진상조'에는 세화는 자비대령화원이 각 30장, 도화서 화원이 각 20장을 12월 20일까지 제작해 올리고, 각 전각이나 문에 붙일 문배는 화원들이 12월 그믐날까지 진상해야 하는 규정까지 밝혀 두고 있다. 세화는 조선 궁중의 공식 세시풍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궁중 중심의 세화 풍습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민간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다양한 소재로 재해석됐다. 세화의 대부분은 십장생도나, 신장도, 모란, 신선도, 수성노인도 등이었다. 그림 속에 장수와 복, 벽사, 학문 숭상, 안녕의 수복강녕 염원을 담아 유통시켰다. 세화는 한국 회화사에서 조선 후기 민화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었다. 두루마리 그림이나 병풍 형식뿐만이 아니라 벽화로도 재치 있게 재해석되고 다양한 성격의 건축 형식에 폭넓게 수용됐다.

궁중 세화의 민간 차원으로의 확대를 견인한 그림은 문배도였다. 문배도는 대문 양쪽에 그린 그림으로 부적 성격이 강했다. 특히 '세화축역(歲畫逐疫)'이라 하여 역병과 같은 액, 재앙을 막는 벽사 성격으로 인해 민가에 유행처럼 번졌다. 오늘날 말로 문배도는 '데몬 헌터스'였다.

문배도에 그린 대표적인 소재가 두 신장상, 용, 호랑이 등이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도상은 용과 호랑이를 대칭적으로 그린 용호문배도다. 두 장군상, 혹은 신장상 형식의 문배도는 매년 종이에 그려 바꿔 부착하는 세화 특성상 남아 있기가 어렵다. 고택에선 안동 하회마을 북촌댁 대문채에 극히 희귀하게 두 장군상 문배를 표구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사찰 중문에서도 벽화 형식의 두 신장상 문배를 드물게 볼 수 있다. 공주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의 중문 좌우 문에 현존한다. 사찰 중문의 문배는 호법신중인 금강역사의 성격이 강하다.

가장 대중적으로 확산한 형식은 대문 좌우에 각각 용과 호랑이를 그린 용호문배도였다. 그림 형식도 있고, 큰 서체로 쓴 문자 문배도도 있다. 민가 고택에서는 문자첩 형식으로 유통됐다. '용(龍)'과 '호(虎)' 한 자씩 큰 글씨로 정사각형 종이에 써서 입춘첩처럼 대문 양쪽에 붙였다. 그림 형식의 용호문배도는 민가의 효자각, 열부각, 고택의 사당 등 특별한 위계 건축에 집중적으로 그렸고, 전통사찰에서도 산신각이나 명부전, 응진전 등의 좌우 벽에 그려 넣는 경향이 뚜렷했다. 용호문배도 그림 배치에서 좌청룡 우백호의 원리는 엄격히 지켜졌다. 문이나 건축을 앞에서 바라볼 때 향우측-동-청룡, 향좌측-서-백호의 원리를 구현했다. 전통사찰에서는 양산 통도사 명부전, 순천 선암사 장경각, 남양주 봉선사 북두각 등에서 그러한 음양오행에 근거한 조형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통도사에 현존하는 네 점의 호작도

현존하는 사찰벽화 중에서 호랑이를 중심 소재로 한 벽화는 20여 점에 이른다. 그중 주목되는 곳은 양산 통도사다. 호랑이 벽화가 무려 4점이나 분포한다. 그것도 한국 산사의 현존하는 호랑이 벽화 중의 정수로 손꼽는 명작들이다. '백호도(白虎圖)' 벽화 한 점과 '호작도(虎鵲圖)' 벽화 세 점이 그것이다. 호작도는 말 그대로 호랑이(호)와 까치(작) 그림이다. 우리말로 '까치호랑이 그림'으로 부른다.

현재 전통사찰에 현존하는 호작도는 일곱 점으로 파악된다. 그중 세 점이 통도사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호작도 벽화의 희귀성에 비춰 볼 때 경이로운 밀집도가 아닐 수 없다. 나머지 네 점은 순천 선암사 장경각, 안동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 하동 쌍계사 대웅전, 김천 청암사 보광전 등에 전한다. 통도사 호랑이 벽화 네 점의 위치와 형식,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해장보각 향우측 외벽 – 호작도(적호) – 71㎝×236㎝
2) 명부전 향좌측 내벽 – 호작도(백호) – 83㎝×198㎝
3) 용화전 향우측 외벽 – 호작도(적호) – 129㎝×156㎝
4) 응진전 향우측 내벽 – 백호도 – 135㎝×266㎝

호작도는 벽사 · 길상의 까치호랑이 벽화
현존하는 호랑이 소재 사찰벽화 20여 점
통도사에 백호도 1점, 호작도 3점 현존
해장보각 · 명부전 호작도는 사찰벽화 명작

네 벽화 중 응진전의 백호도가 가장 크다. 백호는 벽사(辟邪) 영물로 신성하게 여긴다. 백호는 동서남북 네 방위 수호신인 사신 중의 한 영물로서 서쪽 수호신이다.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서 청룡, 주작, 현무 등 다른 사신이 관념적·초현실주의적이라면 백호는 자연에 실재하는 호랑이를 추상화해 영물시한 특별한 신수다.

응진전 백호도, 위신력 갖춘 명작

응진전의 한 칸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백호도는 크기, 붓질 묘사력 등에서 압도적이다. 한국의 호랑이는 두 종류로 알려진다. 줄무늬 호랑이가 있고, 점박이 표범형 호랑이도 있다.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비로전)의 관세음보살-달마도 벽화 속에, 또 합천 해인사 명부전의 호렵도 속에 두 종류 호랑이가 동시에 표현돼 있다. 통도사 벽화 속 호랑이는 모두 줄무늬 호랑이다.

응진전 백호도는 커다랗게 찍어 나간 태점으로 등뼈 골간을 꼬리 끝까지 점점이 이어 나간 후 굵고 짧은 세로획을 일정 간격으로 빠르고도 힘 있게 단숨에 쭉쭉 내려 몸통을 완성했다. 그림 속에서 붓의 머뭇거림을 찾기 어렵다. 거침없는 속도감과 윤곽선이 없는 몰골법의 힘이 동시에 느껴진다.

네 발은 사다리꼴로 안정적이며 독보적으로 위풍당당하다. 딛고 서 있는 땅엔 발톱으로 할퀸 흔적이 뚜렷하다. 자기 영역을 표시한 호랑이 습성을 드러내고 있다. 눈동자는 마름모꼴로 독특하다. 강한 시선으로 한 곳을 지켜보고 있다. 점 하나, 획 하나마다 불전 수호신의 위신력을 담아낸 명작 백호도다.

호작도의 의미는 '신년보희(新年報喜)'로 압축된다. 새해 기쁜 소식을 알린다는 의미다. 통도사 호작도의 중심 소재는 셋이다. 호랑이, 까치, 소나무. 호작도의 구성과 상징을 간단히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호랑이-사악한 기운 물리침(벽사)
까치-기쁜 소식을 전함
소나무-장수의 상징

호랑이는 새해 벽사로서 사악함을 막고, 까치는 길조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다. 사철 푸르른 소나무는 건강과 장수의 뜻을 담았다.

해장보각 호작도, 최고 명작 호작도 벽화

통도사 명부전은 불교 속 민화의 보고로 평가된다. 호작도, 화조도, 수궁도, 삼국지 속 삼고초려도 등 민화 성격의 도상이 풍부하다. 호작도는 명부전 벽화 장엄의 민화적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벽화로 표현한 호작도는 드물다. 한 사찰에 세 점의 호작도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세 점 모두 구성과 소재 측면에서 통일적인 형식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다만 용화전 호작도의 경우 채색 안료가 곳곳에서 떨어져 나가 벽화의 원형을 파악하기 어려워 안타깝다. 하지만 명부전과 해장보각의 호작도는 보존성은 물론이고 희소성과 예술적 완성도까지 갖춰 사찰벽화의 명작으로 손꼽는 데 손색이 없다. 두 호작도는 여러모로 대비된다.

1) 명부전 호작도: 백호. 내부 향좌측 벽화. 내부 향우측의 청룡도와 대응. 꼬인 소나무 두 그루와 바위산이 배경. 비탈 산길을 범 내려오는 형상.

2) 해장보각 호작도: 적호. 외부 향우측 벽화. 외부 맞은편 용화전의 청룡도와 대응, 적송 한 그루와 풀이 돋아 있는 평지 배경. 점프하려는 듯 뒷발에 힘을 집중하고 몸을 웅크린 형상.

무엇보다 두 호작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명부전 내부의 호작도는 다소 정적이고 정지된 느낌이다. 그에 비해 해장보각 외부의 호작도는 동적인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사찰벽화 호작도로 하나만 꼽으라면 해장보각 호작도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

해장보각 호작도에는 까치호랑이 그림의 낭만성도 있고, 역동적이며 극적 긴장감도 살아 있다. 민화가 가진 특유의 해학성이나 자유분방함, 왜곡된 신체 비례, 어리숙하게 과장한 표정 등도 극적이다. 장난기가 화면 전체에 흐르지만 곳곳에 긴장 구조를 살려 내는 주도면밀함도 갖추고 있다. 예컨대 포복하여 다가가듯 몸을 바짝 낮춘 자세라든가 뒷발에 실어 둔 강한 탄성력 등이 그런 모멘트다. 장난기 너머에 예리한 시추에이션을 장치했고, 해학성 너머에 긴장 구조를 갖춤으로써 예(禮)와 악(樂)의 조화로움을 구현하고 있다. 예가 지나치면 경직돼 인심을 잃을 것이고, 악이 지나치면 무질서의 장난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해장보각의 호작도에 예와 악이 조화롭다. 명작 벽화의 품격을 두루 갖췄다. 몸을 바짝 낮추고 꼬리 끝을 힘줘서 감았다. 통도사 해장보각 사찰벽화 속에 K-컬처의 데몬 헌터스가 어흥거리고, 까치는 국태민안을 전한다. 범 내려온다. 꼬리를 세우고 범이 내려온다.



노재학 작가

대한불교관음종 탈종관련 입장문

1.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히 나투어 귀 종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성사는 법성스님(정태선)이 창건하신 유서깊은 사설사암으로서 종무행정 편의상 1989. 11. 5. 창건주께서 귀 대한불교관음종에 사원으로 등록하신 적이 있었으나, 사찰의 주지는 창건주께서 그대로 면면부절 하다가 2004년 5월경 창건주에 의해 법명스님(황우종)이 주지를 계승하여 불조의 혜명을 이어가도록 하시어 법명스님이 지금까지 주지직을 잘 수행해 오셨으며 귀 관음종에서도 이를 인정해 왔다.

3. 이후 법성사에 대하여 창건주 법성보살님의 유지와 불자들의 귀의처로서 자리매김 하기위해 2013. 8. 27. 법성사의 모든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재단법인 법성재단을 설립하여 경남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이후로는 재단법인이 법적으로 법성사의 모든 관리 운영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단법인 설립은 당시 주지인 법명스님(황우종)도 적극적으로 수희동참 하시고 추진하시어 설립된 것이고 귀 종단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10여년 이상 아무런 이의없어 사실상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성사의 주지임명이나 기타 재산 등 관리운영은 오로지 재단의 정관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이 결정하도록 되었고 그 이후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평온히 운영되어 왔으며 귀 종단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특별한 간섭이 없었다.

4. 그런데 근자 귀 종단에서 느닷없이 우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요구하였고 재단에서는 재단법인과는 이무런 연관성이 없는 귀 종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주지해임 운운하고 동시에 재단법인이나 창건주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오인석이라는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겠다고 일방적 통지를 보냈는 바, 이는 창건주에 의한 주지계승도 아니고 재단법인의 정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다.

5. 2013년도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성사의 주지임명이나 관리운영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면서 과거 귀 종단에 법성사를 산하 사원으로 등록된 것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그 당시 법성사의 대표자인 주지 법명스님도 이에 찬성하신 것으로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다시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25. 10. 14. 법성재단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법성사를 귀 종단에서 탈퇴하는 결의를 하였고 주지 법명스님도 이에 찬성하시어 이로써 탈종은 확고히 처리된 것이다.

6. 우리 법성사는 그 동안 귀 종단에 수십억원의 삼보정재를 증여 했지만 귀 종단은 법성사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하나도 한 것 없이 우리 재단 내지 법성사의 재산만 탐하고 불교정신의 구현에는 무관심하므로 법성사의 발전을 위하여 탈종한 것이므로, 추후로는 귀 종단에서 법성재단 내지 법성사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업무방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귀 종단에서 부당한 이득 등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적 간섭을 하려 한다면 부득이 업무방해, 주거침입, 공갈협박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그 동안 귀 종단이 법성사로부터 증여받은 수십억원의 돈도 증여를 해제하고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것이다.
향후 재단법인 법성재단은 새로운 희망을 위해 재단임원 중심으로 사부대중은 더욱 결집하여 법성재단을 정상화 하고 무량한 등불로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다함께 정진할 것을 부처님 전에 천명한는 바이다.

불기 2570(2026)년 2월 10일

재단법인 법성재단 이사장 법련 외 사부대중 일동